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도참고자료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배포 즉시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22. 3. 5.(토) | 담당부서 | 석유산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권혁우 과장(044-203-5220) | 담 당 자 | 권 준 사무관(044-203-5223) |

# 정부,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

## - 러 · 우 사태 관련,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IEA와 협의하여 결정 -

□ **정부**는 3.5.(토) **국제에너지기구***(IEA)**와 협의**하여 **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**함

*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'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
- (회원국) 한국,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 등 31개국

○ 지난 IEA **장관급 이사회**(3.1.(토))에서는 러시아 침공 이후 **석유 가격 급등*** 뿐만 아니라, **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**되었다는 인식공유 하에 **약 6,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**하였음

* 최근 국제유가는 $112.93/B(3.2일, 브렌트유) 수준으로 '14.6월 이후 최고치 기록

○ 이후 회원국 간 방출물량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 끝에, 최종적으로 **IEA 전체 총 6,171만 배럴*을 방출하기로 결정**하였으며, 이 중 **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총 442만 배럴** 수준임

* 미국은 총 방출물량의 절반 가량인 3,000만 배럴 방출 예정(기타 회원국별 상세 방출물량은 IEA 홈페이지(www.iea.org) 게재)

□ IEA 분석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①**흑해 연안 선박 공급 차질**, ②**러시아 SWIFT 배제조치** 및 ③**OPEC+ 산유국들의 증산능력 제한** 등에 따라, **석유시장 공급차질 발생 가능성**이 있으며,

ㅇ **사우디, UAE 등 산유국**들이 **추가적인 증산을 계획**하고 있으나 **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**임에 따라, IEA 국제공조를 통해 **일평균 약 200만 배럴씩 30일간 추가적인 공급을 진행**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

□ 금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 **미국,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방출에 동참***한 이후('21.12월) **약 세 달만에 추가적으로 시행**하는 조치이며,

* '22.12.22.(수) 317만 배럴 규모 정부 비축유 방출 시행

ㅇ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**국·내외 석유시장 안정을 도모**함은 물론, **러시아 침공 관련 에너지 자원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**는 **미국 등 IEA 회원국의 의지를 같이하고자 함**

□ 한편, 금번 방출시에도 정부비축유는 **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 기준인 90일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**해 **추가적인 석유 수급 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**할 것으로 판단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권준 사무관(☎ 044-203-52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